

세계일보

접히고 구겨져도 포용하는 종이...변화 속에서 정체성 재정립 [신리사의 사랑으로 물든 미술]

관련이슈 [신리사의 사랑으로 물든 미술](#)

입력 : 2025-09-30 06:00:00 수정 : 2025-09-30 07:04:45

지미 로버트의 예술과 접힘의 미학

서울 바라캇 컨템포러리서 국내 첫 개인전 '에클립세' 진행
늘어진 분홍빛 종이는 혀 언어·모든 인종 공통된 속살 표현
흑인·퀴어·다국적 등 소외 극복... 개인의 주체·지향성 강조

우리는 서로에게 쉽게 닿을 수 있는 초연결 사회를 살고 있다. 그 속에서 개인의 정체성 역시 타자와의 관계와 경험을 통해 계속해서 변화한다. 주디스 버틀러(1956~)를 비롯한 학자들은 정체성이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반복된 역할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사회적 규범 아래 학습된 정체성은 새로운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는 것이다.

지미 로버트(1975~)는 카리브해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과들루프에서 태어나 파리에서 성장했다. 런던과 암스테르담에서 수학한 뒤, 현재 파리와 베를린을 기반으로 활동한다. 그의 작업은 주로 사진, 비디오, 조각, 텍스트, 퍼포먼스 등 서로 다른 매체가 얹힌 하나의 장(場)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다층적 접근을 통해 그는 흑인 퀴어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이를 가시성이나 권력이라는 거시적 주제로 확장한다.



‘지미 로버트: 에클립세’ 설치 전경, 2025, 바라캇 컨템포러리, 서울. 바라캇 컨템포러리 제공
전병철 촬영

◆취약함의 거듭남

서울 바라캇 컨템포러리에서 지미 로버트의 개인전

‘에클립세(Eclipser)’(8 월 28 일~10 월 26 일)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개인전으로, 기존 대표작들과 함께 새롭게 제작된 영상,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된다.

전시장에는 분홍빛 종이가 천장에서 바닥까지 두루마리처럼 늘어져 있다. 살갗, 정확히 말하자면 상처가 났을 때 드러나는 피부층을 닮은 색은 외적 조건으로 쉽게 규정할 수 없는 작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전시의 서사를 예고한다. 혀를 연상시키는 형상은 작가의 다국적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프랑스어에서 langue 는 ‘혀’ 또는 ‘언어’를 뜻한다.) 신체성을 품은 이 날것의 형상은 인종, 지역,

문화를 넘어선 공통된 신체 조건을 상징하는 동시에, 완벽하게 번역될 수 없는 언어의 취약함, 나아가 자신과 타인 사이의 장벽을 드러낸다.

종이는 전시장 곳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된다. 벽에 기대어 위태롭게 놓이거나 무언가를 가리고 드러내며, 때로는 배경이나 표면으로 존재한다. 문서로서 지니던 권위는 해체되고, '보는 것-보이는 것', '드러내는 것-드러나지는 것', '지탱하는 것-버티는 것' 사이의 간극을 드러내는 장치가 된다. 능동과 수동의 위계를 넘나드는 종이는 연약하고 얇은 물성을 닮은 내밀한 미시적 서사를 담는 동시에, 사회·문화·정치의 거시적 맥락을 아우르는 다층적 서사들을 펼쳐 보인다.

로버트는 특히 종이의 '접힘'에 주목한다. 종이는 외부 환경에 취약하지만,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으며, 오히려 접히고 구겨지는 과정을 통해 질긴 물성을 드러낸다. 접힌 종이는 다른 무언가를 끌어안고 흡수하는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새로운 방향감과 리듬을 발생시킨다. 종이를 접는 그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과 경험, 그리고 정체성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조직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플리에 I(Plie I)'(2020)에서는 바닥에 앉은 자신의 모습을 인쇄한 종이를 부분적으로 접어 제시한다. 프랑스어 '플리에'는 '구부리다', '접다'를 뜻하며, 발레에서 무릎을 굽히는 기본 동작을 가리키기도 한다. 그러나 사진 속 로버트는 포인한 발끝까지 다리를 곧게 펴고 있어 물리적 차원을 넘어선 '접힘'을 은유한다. 여성 중심의 섬세한 발레 동작은 '흑인', '남성', '퀴어'라는 정체성과 중첩되며 일종의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접힌 종이는 파도 같은 일렁임을 만들고, 왜곡되어 흐릿해진 얼굴은 규범화하려는 관객의 시도를 무력화한다.



◆ '불가능한' 만남

접힌 종이 속에 시간 또한 접혀 들어간다. 로버트는 마르그리트 뒤라스(1914~1996), 바스 얀 아더르(1942~1975) 등 선대 인물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거나 모방하며, 시대를 초월한 '영적 가족(spiritual family)'을 이루기를 시도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계 미국인 예술가 차학경(1951~1982)과의 조우를 감각적·정신적으로 재현한다.

차학경은 한국전쟁 중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주했다. 하와이, 샌프란시스코, 파리, 암스테르담, 뉴욕 등지에서 거주하며, 다양한 매체와 언어를 융합한 예술적 실험을 펼쳐냈다. 이민자이자 여성, 타자로서의 경험은 그녀의 예술에서 저항의 언어로 발화되었다. 서러운 삶에 갑작스럽게 맞이한 비극적 죽음과 그것이 사회적으로 다뤄진 방식은 그녀가 감내해야 했을 소수자에 대한 냉혹함을 시사한다.

로버트는 차학경의 경험이 예술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것이다. 두 작가 모두 퍼포먼스, 영상, 텍스트를 주요 매체로 삼으며, 빈 종이와 화면, 공간을 끊임없이 의미가 발생하는 장으로 여겼다. 주류에 속하지 못한 이들이

겪었을 결핍과 부재의 감각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예술을 가장 선명히 드러내는 정체성의 징표가 되었다. 빈 공간, 사라짐 속의 드러남은 두 사람의 예술을 특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동한다.

이러한 맥락은 영상이자 퍼포먼스로 제작된 '에클립세'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프랑스어로 '가리다'라는 뜻의 '에클립세'는 일식·월식 같은 천체의 식(蝕)을 일으킨다는 뜻을 내포하여 사라짐이나 가려짐 속에서 새로운 의미가 발생함을 은유한다. 로버트는 차학경의 드로잉과 텍스트가 담긴 스케치북을 한 장씩 넘기고 더듬으며 그녀와의 만남을 시도한다.

영상은 차학경의 아카이브를 더듬는 장면만으로 구성되어 그녀의 부재를 실감하게 한다. 그러나 로버트는 이를 새로운 '함께함'으로 전환한다. 이전 인터뷰에서 그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통해 연결되는가'라고 말한 바 있다. 차학경과의 '불가능한' 만남 역시 물리적 영역을 넘어선 접속의 중요성을 환기하며, 정체성을 결정짓는 것은 외부의 규범이 아니라 개인의 지향성과 주체성임을 강조한다.

◆공동의 되어감

로버트가 시공을 초월하여 시도한 차학경의 만남은, 타인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려는 시도이자 그녀에 대한—곧 자신에 대한—애뜻함과 사랑에서 비롯한다. 외부의 규범과 시선을 극복하고 주체적으로 정체성을 형성하려는 그의 능동적 행위는 세상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 우리가 여전히 연결될 수 있으며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환기하는 긍정적 실천에 가깝다.

연약한 종이에 새로운 방향과 리듬, 포용성을 부여하고, 단절된 것들을 이어 붙이는 행위는 모두 공동체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서로 다르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는 미래는 과연 가능한가? 그 가능성을 위해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어딘가에서 - 제 3의 공간에서 새로운 관계가 움튼다. 가능한 미래.
공동의 되어감.”(‘에클립세’ 텍스트에서 발췌)

신리사 미술사·학고재 기획팀장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